

포천사회 知識人 ㉔

대진대학교 이정례 교수

과학 英才 교육에 포천시 관심 필요

‘따뜻한 가슴, 냉철한 생각, 부지런한 자세로 살아간다’

“포천의 미래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다. 특히 수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영재교육에 포천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천을 이끌어갈 영재를 제때에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재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대진대학교 이정례(46·사진)교수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서 태어나 용봉초등학교 5학년때 전주시 금암초등학교로 전학, 졸업하고 전일여자중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원 수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수는 모교인 용봉초등학교에 소년한국일보를 보내 학생들이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소년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고 있으며 감사의 뜻으로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편지를 받을 때 행복하다.

이 교수는 1992년3월1일 대진대학교 교교와 동시에 부임했으며 수학과에 대해 “자연과 생활에서 변화하는 것은 모두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함수의 성질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가 함수해석학이다. 특히 자연계에 많이 나타나는 비선형 공간에서의 함수들을 다루고 과학과 공학에 응용할 수학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작용소대수를 공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진대학교에서 이공기초과목으로 수학 및 연습, 일반교양과목으로 수학의 산책, 수학과 정공과목으로 수학의 역사, 해석개론, 실해석학, 미분기하학 등의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이 교수는 대진대학교 자연과학대장으로 자연과학대학을 대표하는 교무위원으로 학교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섬의 의결한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과학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과학영재교육원 수학과 주임으로 영재교육과 영재교육의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하여 포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 교수는 “포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을 공부할 동기와 구체적인 교육의 실시로 학생들이 의정부대학교와 대학에서 이공계학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천시 가산면 소재 경북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학과 학생들과 다양한 교구를 준비해 경북중학교를 방문, 수학의 실험을 통한 흥미 유발과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 및 수학 내용을 직접 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평소 ‘따뜻한 가슴, 냉철한 생각, 그리고 부지런한 자세로 하루 하루를 산다’를 좌우명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먼저 된사람이어야 하고



다음에 든사람, 그래서 난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된사람은 가슴에 사랑을 품은 인간적인 된사람, 든사람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익혀서 머리에 많은 것이 든사람, 난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세상에 이름이 난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포천의 미래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수학을 포함하는 자연과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영재교육에도 포천시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포천을 이끌어갈 영재를 제때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 교수는 중고등학교 수학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아 수학교육 자원활동과 중등 수학교과서 저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관련된 활동과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고시 출제위원, 수학영재교육 관련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진대학교 수학과는 매년 수학과 학술제를 개최하여 수학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활동과 수학영재교육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순수수학에서는 함수해석학의 작용소 대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논문 쓸 계획이며 수학교육은 2009년부터 시행될 7차 수정교육과정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집필 중에 있다. 또한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과학영재들과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 연수를 위하여 수학영재교육 연구와 교육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1992년 대진대 설립 당시부터 몸담아 온 대진대학교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늘 강조하고 있으며 포천시의 발전이 대진대학교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포천시도 대진대학교의 발전이 포천시의 발전과 늘 함께 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신문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에 대해 이 교수는 “포천시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었으면 한다”며 “구체적으로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 입상자, 외교·민사교·과학고 등 입학생,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포천 출신 학생 수 등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포천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알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포천신문이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뿐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 교수는 대한수학회 회원, 수학경시대회 관련 활동, 강원경기지회 편집위원, 여성수리과학회 회원, 한국수학교육학회 평생회원, 수학경시대회, 각종 수학교육학회의 참여 및 발표 수화사랑 평생회원, 포천시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표한 주요논문과 저서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석사논문-The Order Structure of the family of Finité von Neumann Subalgebras (폰 노이만 부분군 족의 크기 구조) ▶박사는 문-Jones' Index and Relative Entropy(존스의 지표와 상대엔트로피) ▶On the Cauchy-Rassias Stability of the Tri Functional Equation in C\*-algebras-Journal of Mathema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s, 2004 ▶The Positivity of Linear Functionals on Cuntz Algebras Associated to Unit Vectors-Proceedings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2004 ▶Galois Correspondences for subfactors related to normal subgroups-Commun. Korean Math. Soc. 17, 2003 ▶Galois Correspondences for subfactors related to normal subgroups - Commun. Korean Math. Soc. 17, 2003 ▶Representations of O\_n and their restrictions to UHF\_n-Far east journal of mathematical sciences, 2001 ▶ On the positivity of matrices related to the linear functional-대한수학회 강원 경기 지회 논문집 9, 2000

▶Linear Functionals on O\_n and product pure states of UHF-Kangwon-Kyungki Math. Jour. 9, 2000▶Automorphisms related to intrinsic groups of Kac algebras-Far east journal of mathematical sciences 3, 2000 ▶Linear Functionals on O\_n associated to unit vectors-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대한수학회논문집), 2000 ▶On sub-Kac algebras and subgroups - 한국수학교육학회지, 1999 ▶지적재산권특허-통화 대기 시 음성문자화상 상점정보 발신통발생방법 및 장치 실용신안-접는 구조의 사다리, 휴대용 열쇠고리 ▶대학교재-대학수학, 이공수학, 기초수학 ▶교양 수학-수학의 오솔길(경문사) 수학의 이해(대진대 출판부) ▶고등학교 교과서-수학, II, 미분과 적분(지학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大眞大學校의 발전이 抱川市의 발전과 늘 함께 한다”



신임 김인수 개성인삼조합장

“조합 정상화 화합과 단합으로 해결”

조합원 임직원 합심하면 문제 해결에 큰 힘 될 것

건강상의 이유로 조남실 전 개성인삼조합장이 지난 10월 31일 사퇴함에 따라 11월27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김인수 전개성인삼조합 이사가 당선됐다.

총 조합원 893명 가운데 669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김인수 후보가 296표를 얻어 당선 확정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10월31일 조남실 전조합장이 사퇴한 이후 11월15일과 16일 후보자 접수를 받은 후 17일 후보자 등록 공고, 17일부터 26일까지 공개토론회를 마치고 27일 조합원 직접 선거에 참여했다.

김인수 당선자는 현재 조합장이 공석인 점을 감안, 선거직후인 28일 조합장 업무에 들어갔다. 28일 오전 개성인삼조합장에서 김인수 신임 조합장을 만나 인터뷰를 실시했다.

▶당선 소감은

어려운 가운데 조합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조합원들께 감사 드린다. 조합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어제 선거를 치르고 오는 취임했다. 조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조합내부 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조합원 소득증대 사업과 적자폭 축소 등 조합의 기본틀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장이 되기 전에는 개인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공익적 차원, 즉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노사갈등 해소방안

노사간의 문제는 우리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도 풀기 어려운 문제다. 노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수렴할 수 있고 합당한 것이라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용할 생각이다. 조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합원과 조합간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선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것이다.

▶경영수지 개선방안

조합은 대략 30억원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폭을 빨리 개선해야 희망이 있다. 마트나 신용사점 분야는 적자가 없지만 공장 운영에서 적자를 보고있다. 경영수지 개선방안으로 조합원 출자금, 구조조정, 사업확장 등의 방법 중에서 사업확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인삼수매 물량을 증가시켜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 규모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사업확장을 통해 보완할 생각이다.

▶조합원 소득증대사업 방향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해 농약과 자재를 공동으



로 구매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생각이다. 또 각 지역에 있는 가공시설을 이용해 1차 가공을 실시하고 조합공장에서 2차 가공에 판매함으로써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점차 확대 운영할 생각이다.

조합의 운영책임자로서 조합 수익성과 조합원 소득증대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인삼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 담배인삼공사가 인삼 수매가격을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재배는 다른

농업과 달리 기계화에 한계점이 있다.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토지임대료 등이 상승하고 있어 투자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보다 노력하고 투자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케팅 전략으로는 판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개척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주시 개성인삼조합 상표권 다투해결 방안

개성인삼이라는 상표는 원래 개성에서 인삼을 재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후 간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파주에서 아무리 장사속이라고 하지만 명분과 예의가 있어야 한다. 상표를 사용하려면 최소한 포천 개성인삼조합장과 협의의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에는 유감이다. 상표도용은 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닮았다. 파주 조합장이나 실무자를 만나 협의할 생각이다. 일단 서로의 입장을 존중했지만 개성인삼이라는 상표 사용은 자제를 부탁한다.

▶조합원들에게 부탁할 사항

조합원 성원에 힘입어 당선됐다. 그러나 조합원 일은 너무 어렵다. 조합원과 임직원이 합심해 노력을 버리고 大我를 찾는다면 조합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조합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원과 직원과 혹은 노사간, 임직원간 화합과 단결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경영수지개선이나 다른 문제들은 자신 있게 풀어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조합원과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기를 바란다.

김인수 신임 조합장은 1950년11월22일 충남 논산 출생으로 1969년 금산고등학교 졸업과 1970년 제3사관학교를 중퇴했다.(훈원중 부상)

또 주요 경력으로는 1972~73년 월남전 참전, 2001~2004년 개성인삼농협 이사, 2001~2006년 (사)한국경작인삼협회 이사(현), 2005년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전문위원, 경기도 인삼연구회 초대 및 2대 회장(현), 농협대학 최고경영자 총동문회 감사를 맡고있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다키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